동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東アジアの平和と韓日関係の改善のための対話

대화록 33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東アジアの平和と韓日関係の改善のための対話

때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3:00 – 6:00

곳　대화의 집

주최　대화문화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회의

차례

3 **여는 말씀**
—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일본 측 상황 1
6 한국 원로 회의 모두 설명
—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다대학 총장

10 [참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안: 전쟁 시대를 직접 체험한 세대의 제안(안)
—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다대학 총장

일본 측 상황 2
12 니시하라 구상과 나
— 오카모토 아쓰시 이와나미서점 사장

한국 측 상황
14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평화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17 **대화**

39 **참석자 명단**

40 **부록** [Japanese Version]

여는 말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열흘 쯤 전에 동아시아평화회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주권자전국회의가 함께 참여해 성명서(‘동아시아 평화 진전을 위해 아베 일본정권의 한반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각계 원로 106명의 성명, 2019.10.10)를 낸 일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변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첫째,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의 문제보다, 그 역사를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 한국 모두가 그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19세기 후반~21세기 초 150년 동안 양국이 경험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해는 ‘1910년 (이른바)한일 합방’, ‘1945년 2차 대전 종식’, 그리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협정’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의 인식 차는 어떻습니까. 예컨대 일본 아베 총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1965년입니다. 1965년 한일 협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법원 판결 등의 배경을 보면 1965년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면 1910년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것이 오늘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150년을 돌이켜 보면 19세기 후반부터는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국을 영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으로서 이웃에 있던 한국을 병합했던 것, 그것이 1910년입니다.

이후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유엔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는 2차 대전을 정리하는 평화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의 희생자인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사안에 대해

서는 국제적 평화 협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공백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어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복원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만들고자 국교 정상화를 이뤘고, 그것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역사를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합의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가진 인식의 초점은 1965년의 한일 협정을 모든 사안의 기준으로 두고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 조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1910년 한일 합방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역사학자들의 꾸준한 연구에 의해 병합이 이른바 합법적 방법으로 이뤄졌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1910년 한일 합방 자체가 완전한 합법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인의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 제국주의 시대에-한국으로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식민지 시대에-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한국 국민 개인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보상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양국이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 측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일 간 어떤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 법칙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동아시아, 특히 한일이 위치한 우리 주변의 새로운 국제 관계, 새로운 평화적 이웃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말고 역사의 인식을 새롭게 같이 함으로써 미래의 도약을 함께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많은 학자, 지식인, 언론인들이 이런 새로운 생각의 필요성에 동조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인 1919년 3.1운동의 100주년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3월 28일 이 자리에서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가 열렸습니다. 일본 측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직접 오셔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한일 합방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걸 전제로 모든 걸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우리로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지성인들의 이야기이고, 전체 일본 국민들과 전체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런 새로운 역사 인식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귀한 손님이 오셔서 이 모임이 처음부터 빛이 나고 있습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다대학 총장님. 한국에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고려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으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오카모토 아쓰시 이와나미서점 사장님. 많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도 어려운 상황에서 출판하신 바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특별히 일본과 한국이라는 이웃 간 간격을 두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전통에 따라 두 분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우리 측의 의견도 이야기해서 논의를 해 보면, 한일 양국이 제국주의 시대와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나는 지난 15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역사를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이웃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측 상황 1

한국 원로 회의 모두 설명

니시하라 하루오
西原春夫, 전 와세다대학 총장

오늘 한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많이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모임은, 경애하는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의 오카모토 아쓰시 사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하신 지명관 선생님께 저와 제 기획을 소개하는 메일을 9월 10일 즈음 발송해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지명관 선생님께서 바로 이삼열 선생님과 이부영 선생님께 연락을 취하셨고, 그 성과가 오늘의 모임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식견과 노력에 그저 경복(敬服)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8년 동안 도쿄에 소재한 와세다(早稲田)대학에서 총장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와세다대학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대단히 친근한 관계를 지닌 대학입니다. 그곳 총장을 맡은 저도 전통을 이어 받아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랬던 저도 작년에 90살을 맞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아직 못 다한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12년 동안-아마도 세계화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대한 저항감의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많은 국가에서 내셔널리즘의 기운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전쟁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한 1945년에 17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시기에 패전과 가치관의 대전환을 경험한 셈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후의 인생을 좌우한 여러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생각에 지금도 이끌리고 있다 보니, 저는 최근의 세계 추세가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 같은 심정을 안고 있는 같은 세대 사람들이 일본이나 외국에도 있지 않을까, 그 중에는 평화를 위해 뭔가 행동하고 싶은데 적당한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도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갑자기 어떤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하늘이 계시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질 만큼 굉장한 발상이었는데, 너무도 꿈같은 이야기여서 주변에 계신 지식인들께 닥치는 대로 상의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계신 오카모토 이와나미서점 사장님을 포함해 20명 정도가 예외 없이 "찬성한다", "꼭 해야 한다", "꼭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아시아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 분이면서 오랜 세월 저와 교분을 쌓아온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께 상의를 드리니, "해야 한다, 나도 돕겠다"고 판단해 주셔서 저도 최종적으로 결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획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느 특정 시점을 기해 모든 동아시아 구성 국가의 정상들이 '동아시아를 전쟁 없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공동 선언을 발신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동아시아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국가의 원로들, 전쟁 시대를 직접 체험하여 전쟁의 비참함과 우매함을 몸소 느낀 대략 85세 이상의 원로들이 국경을 넘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각국 국민과 정부를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획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일종의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거의 반세기를 지내온 와세다대학의 기본적인 교풍 중에 언제나 '민'(民)의 입장에 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립 대학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도쿄대학이 언제나 '국가'의 입장에 서는 것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국가의 입장과 민의 입장이 언제나 반드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양자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에 와세다대학은 국가 입장에 반할지라도 민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교풍입니다.

이는 전전(戦前) 시기에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와 동아일보의 창립자인 김성수 선생 등 많은 민족 독립운동의 이론적 지도자를 와세다대학이 배출한 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전의 한일 병합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등은 모두 '국가' 시책의 발로일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 서면 여러 가지 '명목'이 있으니 대립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 가운데도 물론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본인은 '위안부'나 징용공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의 일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의 입장과는 다른 '민'의 입장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입니다. '민'은 전쟁 따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와세다대학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민'의 입장에 선다는 마음가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 안에서 '적어도 동아시아를 전쟁 없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열망이 생겨났고, 민의 입장에 서는 각국 원로 분들과 손잡고자 하는 발상이 생겨났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해해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는 제가 오랫동안 대학 경영으로 고심하면서, 특히 1960년대 후반에 일본에 불어 닥친 '대학 분쟁' 시절에 보직자로 고생하면서 익힌 처세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해져 감정적인 대립에까지 달했을 때에는 '대립을 해결, 해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해결, 해소'가 아니라 '극복, 초극(超克)'의 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극복, 초극'의 기법은 대립하고 있는 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높은 차원이란 대립하는 이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가시화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와세다(早稲田)와 게이오(慶應)는

영원한 라이벌 대학입니다. 실제로는 사이가 좋은데 그래도 '상대편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양 대학은 사학의 으뜸으로 발전해왔다고 봅니다.

행여 와세다대학의 총장이 '사학의 으뜸은 게이오가 아니라 우리다'라 우기고, 게이오대학의 총장이 '사학의 으뜸은 와세다가 아니라 우리다'라 호언한다면 대립은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도 곤혹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와세다와 게이오 모두 사학의 으뜸이고자 임하고 있으니, '사학'이라는 것을 공통분모로 삼아버리면 됩니다. 사학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 '재무성'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와세다와 게이오의 총장이 함께 사학을 대표해서 재무성과 교섭하고, 그 과정이 성과를 거두는 동안에 총장들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저의 오랜 처세술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가의 입장에 서자면 현재의 문제 해결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이기에 더욱 저의 오랜 기법이 한일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높은 차원, 공통분모, 그것은 양 국민이 함께 살고 있는 '동아시아'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둘을 합한 '동아시아의 평화'. 이를 바라지 않는 양국 국민은 없습니다. 공통의 이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합시다'라는 말만으로는 운동으로서의 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모든 구성 국가 정상들의 공동 선언'이라는 가시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언론, 정부를 추동하기 위해 그 시기는 금세기에 단 한 번 맞게 될 2022년********(ex: 2월 22일 22시 22분 22초)라는 시점을 고려해봤습니다.

모두 설명의 마지막으로 다음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저희는 결코 이번 기획을 일본 측에서 정해놓고 그에 대해 한국 측의 찬동을 구한다는 방침은 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분명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아시아인으로서 운동에 필요한 조정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직 기획을 실현하는 와중에 있고 원로그룹도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본 원로들에게 기획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한국 원로들께도 동일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 내용도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획의 표어로 "모두의 꿈을 모두 함께 이룹시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언어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별 원로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모두가 '동아시아의 원로'라는 공통 의식을 가져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이제 오카모토 이와나미서점 사장님의 말씀을 들은 후, 질의응답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안:
전쟁 시대를 직접 체험한 세대의 제안(안)

니시하라 하루오
西原春夫, 전 와세다대학 총장

취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이전에 빈발하던 국가 간 전면 전쟁은 다행히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굳은 결의만 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의 증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각기 심각한 배경을 갖는 국지적 전란은 안타깝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곳에서 무고한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음을 작금 마음 아파하는 바이다.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는 현재도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의식하고 한층 더 노력을 계속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없애는 것도 꿈은 아니다.

전쟁이 없는 지역을 조금씩 확장해갈 수 있다면 그만큼 세계 평화가 다가오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동아시아를 전쟁이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노력은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커다란 기로에 서 있다. 이 때에 즈음해 전쟁 시대를 직접 체험하고 전쟁의 비참함과 우매함을 통감하는 동아시아 각국 원로들이 국가를 초월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각국 국민에게 말하고 정부를 움직여 평화를 향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는 것은 시대가 요청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각국 정부에 제안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바라건대 평화를 희구하는 각국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지원을 기대한다.

제안 내용

전쟁 시대를 직접 체험한 세대에 속하는 우리는 다음 사항을 동아시아 각국 정부에 요망한다.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 22초라는, 그야말로 천 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점을 기해 동아시아 모든 구성 국가의 정상들이 아래와 같은 공동 선언을 할 것.

(1) 적어도 우선 동아시아를 전쟁 없는 지역으로 한다.
(2) 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국끼리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이 사이에 서는 등 아시아인 특유의 예지를 기울여 해결을 도모한다.
(3) 유엔헌장 및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를 추진한다.
(4) 국민, 청년 교류와 문화 교류 등 상호 이해를 위한 시책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본 측 상황 2

니시하라 구상과 나

오카모토 아쓰시
岡本厚, 이와나미서점 사장

오늘 이렇게 많은 중요한 분들께서 함께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발언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니시하라 전 와세다대학 총장님이 제기하신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가칭)에 공감하여 이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아직 65세입니다. 아직 원로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웃음) 다만 사회적으로 보면 슬슬 정년을 맞이하는 연령에 달하고 있습니다. 91세를 맞으신 니시하라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구상이 있는데 말이야'하면서 일갈을 해주시는 형태로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운동을 해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자신은 1995년에 한국의 크리스챤아카데미와 일본의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 심포지엄 개최 당시 사무국으로 참여해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작가, 고(故)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교수, 이와나미서점의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 당시 사장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였고, 도쿄에서 모임을 가질 때 많은 한국 선생님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들의 발언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 측에서 중심이 되신 지명관 선생님,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삼열 이사장님을 오늘 뵐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후 이와나미서점의 〈세카이〉지 편집장을 16년간 지냈고, 그 기간 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이와나미서점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카이〉지에 있었을 때나 그 후에도 한일 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올해 들어 2월에는 '3.1선언 100년'을 기해 발표한 성명서 "2019년 일본 시민 지식인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7월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80명의 지식인(有識者)들과 함께 "한국은 '적'인가" 성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에 찬동한 서명자는 두 달 동안 9500명을 넘겼습니다.

저는 현재의 한일 관계, 특히 아베 정권의 대한 정책에 위기감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방금 니시하라 하루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가칭) 구상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전술한 구체적 정책 제언들과는 위상을 달리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중일, 한일 간 영토 문제가 불거진 무렵을 계기로) 니시하라 선생님과 가끔 대화를 나누며 교류해왔습니다. 주요 주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상황 변화도 있어 중일 관계는 다소 개선 조짐이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대립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적은 인원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니시하라 선생님은 대학 총장을 퇴임하신 후에도 중국을 방문해 전문이신 형법에 대해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부 간에는 대립이 심해도 선생님은 교류와 가르침을 지속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중국 사법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선생님의 사고는 한편으로 대단히 기개와 도량이 크고(気宇壮大)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강한 신념과 단호한 사명감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번에 생애 마지막 작업으로, 또한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작업으로서 선생님이 구상하신 것이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가칭)입니다.

여기에는 가령 현재의 한일 간 대립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또는 남북한 간의 문제, 홍콩 문제, 한국과 중국의 대립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전체를 감싸듯 동아시아 지역이 일치할 수 있을 만한 정상들의 부전(不戦)선언을 하자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각국의 보수적인 인사부터 리버럴한 인사까지, 그리고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한 인사들이 우선은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전쟁을 바라는 나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셔널리즘이 조장되어 선정적이고 단락적인 정치인의 발언이 되풀이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날것의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각국 원로들이 그에 대해 충고하고 국경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선언하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보루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동아시아에서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약속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일 간의 대립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나 성명, 구체적 행동 등과 이 구상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측 상황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평화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국을 찾아주신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다대학 총장님과 오카모토 아쓰시 이와나미서점 사장님을 따듯하게 환영합니다. 니시하라 선생님께서 기개와 도량이 크고 넓으신 동시에 현실적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로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접촉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최근 한일 관계를 바라보면서 지난 100여 년 이상 피해를 받아온 한국 입장에서 또 이러한 변화가 무슨 일을 가져올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촉발된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단일 시장경제권으로 전 지구를 압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압도적 자본과 과학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장기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처럼 보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지도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서남아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계속되는 대결과 전쟁, 중국의 강대국 등장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퇴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력 위축은 동아시아, 특히 예민한 한반도에서 기존 체제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산 아래 지난 70여 년 동안 안보와 경제 번영을 누려온 일본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과 평화 헌법 체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1965년 체제가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기초로 발전해 온 역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며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역사가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체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이 지역의 민족주의 감정을 촉발시킬 우려가 큽니다.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을 거쳐 이룩된 간 나오토 담화는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치유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나눈 대화는 그 치유의 근거를 더욱 보완해줄 것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 ‘한국이 과연 적(敵)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한국의 지식인들은 레이와 새 시대를 맞아 일본이 이웃과 함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지식인들 간의 교류, 시민 사회의 상호 이해, 일반 시민들의 상호 방문과 문화 교류는 큰 진전을 보여 왔지만 변화하는 국제 관계에 따라 기복을 보여 온 양국의 정치권이 관계의 역류를 불러오곤 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발표된 한국 지식인 106인의 성명서는 10월 22일에 나루히토 천황이 취임하는 행사를 앞두고 7월에 발표된 일본 지식인 성명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보수-진보 지식인들이 한 목소리로 발표한 성명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로 전락한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아베 일본 정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아베 정권이 그간의 한반도 적대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부당한 무역 규제 등을 철폐해야 한다.
2. ‘1965년 체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그 시정에 나서야 한다.
3. 아베 정권은 일본이 핵무기에 의한 최초, 최대의 피해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 평화 헌법 체제를 지켜가야 한다. 한국인도 일본인에 이어 핵무기의 제2의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상기시키고자 한다.
4. 일본이 한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를 비핵무기지대로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한국의 성실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5. 일본이 북한과 오랜 비정상 관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고 한반도와 일본이 새로운 백 년을 함께 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 일본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일본이 핵무기에 의한 최초, 최대의 피해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 평화 헌법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일본이 한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를 비핵무기지대로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한국의 성실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사실입니다. 일본과 한반도가 동아시아 비핵화와 비핵무기지대를 성사시켜간다면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동아시아 평화에 두되 먼저 한일 사이에 화해와 친교를 두텁게 만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총장님의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반기며 이번 방한을 뜻 깊게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카모토 아쓰시 이와나미서점 사장님께도 이러한 방한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화가 있기 전, 오랜 만에 지명관 선생님과 간단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분단 시대를 평화 통일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 받았습니다. 지 선생님께서는, 우리는 지금도 분단을 겪고 있고 민주화의 도정에 있지만 민주주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을 세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이상 그에 따른 구상을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도 그 과정의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 구상에 큰 기여를 해 준 대화문화아카데미도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대화

이삼열
사회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저희 대화문화아카데미는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20여 년 전인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해방 50년과 패전 50년-화해와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큰 모임을 열었는데요. 당시 모임에서는 요시카즈 사카모토 동경대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고, 오에 겐자부로 작가, 당시 이와나미서점 대표이면서 〈세카이〉지 편집장이셨던 야스에 료스케 선생님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명관, 김지하, 백낙청 선생님 등 많은 지식인들이 참석하셔서 한일 지성인 간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 뜻 깊은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한일이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화해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결의도 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와 용서의 방법까지 이야기하는 등 구체적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 기억으로 1998년과 2001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대화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에 관한 논의는 많은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이뤄져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오랜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레토릭'은 많이 있었지만 동아시아 평화의 실천은 사실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크게 일어나고 동아시아에 불고 있는 새로운 냉전 체제를 바라볼 때 동아시아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진전 가능한가 하는 회의마저 듭니다.

저희 대화문화아카데미도 지난 3월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를 모시고 열었던 대화모임에서, 앞으로의 백년은 지난 백년과 달리 한일이 화해하고 평화적, 공동체적 인식을 갖는 관계로 발전하자는 나름의 결의와 제안을 했지만 그 뒤 실질적으로 관계는 갈등으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니시하라 전 와세다대 총장께서 시민 사회 원로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깃발을 들자는 결의를 하시고 그 제안을 한국 측에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91세의 노령이신데 생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몸을 바치시겠다고 하시면서요.

니시하라 선생께서는 중국과 관련을 맺고 일중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려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면서 10여 차례 방한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이 10년 만의 방한이라고 하십니다.

니시하라 총장님이 보내오신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제안서는 전쟁을 겪은 원로 세대가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정상, 시민 사

회, 젊은 세대 등에 호소를 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의 여러 시민 사회 원로들과 의논해 뜻이 맞으면 중국 등 동아시아로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성되고 합의될 지는 정해진 바 없이 열려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그마한 결실이라도 얻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어려운 시대에 평화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민 사회로부터 평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니시하라 총장님의 말씀은 우선 동아시아 평화를 화두로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한일 간 갈등이나 긴장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부영 위원장께서는 지난 10월 10일 106인 시민사회 원로들의 선언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과 한국 측의 발제가 비슷하면서도 그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시하라 전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원로들께서 나서는 것에 감동을 받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호소와 성명을 통해 과연 동아시아 원로들이 감동을 받아 동아시아 평화를 만드는 데 나설 것인가, 어떻게 힘을 모아 압력을 가해야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막연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모순적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귀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질문과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니시하라 선생님께서 이부영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이부영 선생님께서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106명 원로의 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에게는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 드리면, (106명 한국 원로들의)제언 내용을 보면 일본 국민도 '그렇다, 맞다'고 찬동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언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국민 중에도 제언과 같은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 갈등 문제 뿐 아니라 그보다 하나 위의 차원에 서서 한일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운동 속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이 사실적 내용으로서 발표가 되고 점점 찬동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열
사회

그럼 니시하라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니시하라 선생님의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 제안은 감동적이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 구상에 있어 국가의 입장이 아닌 '민'의 입장을 강조한다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에서 '평화'는 누구의 평화인가? 이것이 정말 동아시아 '민'의 평화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은 정말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나. 그리고 동아시아 '민'의 평화를 파괴하고 희생시킨 것에 대한 반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한국의 위안부와 강제 징용노동자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는 동아시아 평화의 민의 희생, 한국민의 희생의 한 대표적 사건일 뿐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국가 간 합의로 이 민의 희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지금 김성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누구의 평화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민'의 평화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결국 '민'입니다. 전쟁에 끌려간 병사들은 다 죽게 되고,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불타는 것이죠. 결국 전쟁의 피해자는 민중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 일본의 민중들도 피해와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많은 국가들의 민중 뿐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라는 것은, 동아시아의 모든 민중들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 희생자들, 예를 들어 강제 징용공, 위안부 희생자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것은 국민이었습니

다. 물론 당시에는 일본에 속한 식민지였으므로 일본의 국격을 사용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조선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상태가 재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먼저 니시하라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민'의 평화이지만 수단은 동아시아 각국 정상들로 하여금 선언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은 '동아시아 구성 국가'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간단히 듣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첫 번째 동아시아의 범위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동아시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왜 '아시아'라는 말로 범위를 넓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일본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엄밀히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른바 '아세안+3'에 몽골, 극동아시아와 동아시아가 같이 결합한 형태의 14개국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1보가 될 것이고요. 이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만일 우리의 후계자가 이것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백낙청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동아시아의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답변 도중 '아세안+3'을 말씀하셨는데, '아세안+한중일' 아닙니까. 거기에 북한이 빠졌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아, 들어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안에는 한중일 이외에 북한, 몽골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동아시아 정상들로부터 이런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손잡고 나가자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정상들의 선언을 이끌어낼 때는 구체적 계획을 다 빼고 하면 원칙에 동의 얻을 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까 이홍구 총리님도 지적하셨듯, 핵심에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얼버무리고 적당한 선언으로 가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선 이홍구 총리께서 1910년부터 45년의 역사와 1965년의 역사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 사이에 한일 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중점의 차이가 아니고, 또는 1910년과 1965년 사이의 역사 해석의 차이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류 사회가 그 시대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려는 경향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 해석의 차이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전진할 수 있지만 그 역사를 한쪽에서는 완전히 잊고 부정하려 하고 그 부정의 방법으로 '1965년에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양국 간 국민 협력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965년에 여러 합의를 했지만, 첫째,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양국 간 해석이 다릅니다. 더구나 그때 완전히 해결됐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청구권 문제이지 식민지 시대 역사 전반에 대한 청산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1965년을 내세워서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1965년 체제는 일본이 지배했던 조선 반도의 절반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965년을 내세워 역사를 부인하려는 것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사이의 역사도 반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전쟁에 힘입어, 한국 전쟁의 와중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협정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의 내부에서 하나의 큰 기둥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1954년 한국 전쟁이 일단 끝나고 휴전 체제가 성립되었는데 그것이 7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일종의 '분단 체제'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단 체제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이 1965년 한일 협정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는 그런 분단 체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1965년 체제가 한반도 안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바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1965년 체제를 고집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없는 단계로 한반도가 이미 들어섰고 세계가 들어섰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5년 체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이후의 역사 중 최근 한반도에서는 분단 체제의 대 전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와 언론계도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2016~2017년 '촛불 항쟁'으로 시작한 우리 역사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걸 빼고 생각하면 새로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가령 한일 관계에서 정착되어 있는 징용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촛불 항쟁이 있기 전에는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화되기 어려웠는데요. 촛불 이후 이것이 다시 문제 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를 비롯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사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것이 한일 협정 위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이,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도, 인식이 너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2018년 이후 한반도 전체가, 지금 당장은 북한과 미국의 교섭이 교착되어 있긴 하지만, 큰 전환의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단 고착을 전제로 한 1965년의 한일 협정 체제는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물론 당장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러한 여러 면에 대한 인식이 양국 국민들 간에 충분히 퍼지기 전에는 그냥 좋은 선언을 하나 하는 것 외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차원을 높여 새로운 일한에 우호적 관계를 만들자고 말씀 드린 것은 결코 역사 인식 문제를 무시하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일본의 국민 감정 자체가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민과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일본 국민도 일본 정부에 대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국민 전체가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민은 한국 국민이 뭘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삐그덕 거립니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역사 인식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죠. 저 개인은 90년의 생애 속에서, 저의 생각 안에서 상당히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것이 국민들 사이 공통의 이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래서 대립을 어쨌든 사실로서 인정하면서 그 위의 차원에 선다는 것,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역사 인식을 포함한 양국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이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사실부터 출발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해나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얼버무릴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낙청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 니시하라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2022년 공동 선언에 기본적으로 찬동합니다. 그걸 하지 말고 이걸 해결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또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이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도 동의합니다.

다만 선언을 먼저하고 한일 관계를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2022년에 그런 선언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 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2022년에 아무리 좋은 선언이 나와도 그 파급력은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다행히 2022년까지 2년이 남았는데요. 이러한 선언 운동을 통해 하나의 방향이 나옴으로써 비슷한 기류가 더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해해보자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류가 생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단지 백낙청 선생님께서 처음에 아세안 국가들을 이해시키기보다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국민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많이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뭐든지 돕겠습니다. 이러한 '민'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전 산업자원부 장관

먼저 니시하라 선생님께 사죄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한일 지식인 1000인의 '한일합방 원천무효 공동성명서'에 참여했는데, 그 첫 의논을 여기 계신 오카모토 선생의 방에서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 몇 차례 강연이 있었는데 한번은 니시하라 선생께서 제게 손 편지를 주셨습니다. 붓으로 쓰신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감동했

을 뿐 아니라 압도당했습니다. 편지의 정성에 감복하고 제가 정성스러운 답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자니 제 능력으로는 한 달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애를 쓰다가 결국 답을 못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죄송스러움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각을 많이 하신 제안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85세가 안 되어서 성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참을 하겠습니다.

단,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니고 민간 입장에서 하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가는 길이 간단치 않다고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식민지 침략주의로 일본의 국민도 세금 더 내고 군에 가 싸워야 하는 등 약간의 피해를 입지만,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과 침략을 받는 나라의 국민의 피해는 결단코 동일하게 올 수 없습니다. 그 피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과 당시 한국 국민의 피해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피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의 입장보다는 민의 입장에 서라'는 말도 좋지만, '자국의 입장보다 타국의 입장에 서라'는 말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을 너무 강조하면 마치 '민'의 입장을 (국의 입장에 대비해)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국의 입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에는 한동안 내셔널리즘을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 추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인도·태평양 동맹이라는 일본의 내셔널리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는 논의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베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조치 이후 한일 갈등을 두고 내놓은 〈LA타임즈〉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없어졌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제가 공감하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민'에 의한 전망, 그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 사회, 즉 한국의 촛불 혁명을 일으킨 시민 사회와 일본의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려는 시민 사회(저는 일본의 이 시민 세력이 평화 헌법 수호에 성공한다면 하나의 시민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우산혁명 세력이 '시빌 아시아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위축되고 좌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반대로, 민의 입장을 강조하는 논리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정부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리면, 정부의 잘못을 용인하거나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초점을 흐릴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 점을 살리면서 니시하라 총장님의 논리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일 대사

오늘의 주제가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 개선, 두 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 두 가지는 얽혀있죠. 시간상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평화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동아시아 개념에 관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확정적 개념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걸 따지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에는 2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라는 표현이 이미 학문적, 정치적으로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북아시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저는 이미 아세안은 평화협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아세안 10개국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만큼 잘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백낙청 선생님의 역사의식을 넣는다면 '한중일 평화의 보다 핵심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다, 그걸 하려면 일본 역사의식의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충분한 결실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니시하라 구상이라는 것은 남은 시간이 가장 적은 사람만이라도 깊은 성찰을 해보자, 일본 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하자는 충정과 목적이 아니예요? 거기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 놀라운 것은, 물론 와세다 동문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후쿠다 전 총리 같은 분이 나서서 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자민당 출신 총리 가운데 지금 니시하라 구상에 흔연히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후쿠다 총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지를 밝히셨다는 것이죠. 더구나 중국이 보기에도 니시하라와 후쿠다, 민간 원로와 총리 출신의 원로 두 분이 추진하시면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할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도 좋다고 보고요. 많은 분이 동의한다고 했으니 자발적 동의가 있으리라 봅니다.

내친 김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간 신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주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도 해결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간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역대 정상에 비해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베 총리는 같은 자민당 총리 가운데서도 역사 인식에 대해 가장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두 정상 간의 현격한 역사관의 차이로 신뢰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최악은 피했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 이후 두 정상이 신뢰 형성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백낙청 교수님의 근본적 문제 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참으

로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책임 있는 두 정상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역사 인식의 공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은 니시하라 구상에 찬성합니다.

이삼열
사회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동아시아 원로의 기준을 꼭 '85세 이상'으로 해야 하느냐는 말씀들이 있는데요.(웃음) 그 이하의 분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한국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는 연령 관계에서 분명 운동의 중심은 전쟁 시대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서 동아시아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전쟁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의 설득력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85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략 85세 이상인 분들 중 제 머릿속에 20명 정도의 후보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 9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나머지 6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5명 정도는 모으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로 그룹', 일본식으로는 '장로 그룹'의 운동을 '지원'하는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원 그룹'이란 것은 단순히 문화인에 국한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생각에 찬동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아시아 평화에 참여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무한대의 지원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선두에 후쿠다 전 총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요시로, 고노 요헤이 같은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반드시 참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오카모토 사장님, 여러 많은 문화인들께서 이미 30명 정도가 지원자로 고려될 수 있고 이를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로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은 안 돼, 식민지 지배는 안 돼!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고 천하만세상에 그냥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로들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그런 형태로 돕겠다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원자 가운데 일종의 '실행위원'을 구성해 오카모토 사장님도 거기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상의하면서 원로들을 현실적으로 움직여가는 형태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선생님께서 국가와 백성, 정부와 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에 대해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진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만일 한국에서 그런 조직화가 가능하다면 내년 2월 정도에 몇 분이 도쿄를 방문하셔서 양쪽이 함께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구체적인 안입니다.

지명관
전 한림대 석좌교수

아시아에서 그래도, 적대감을 갖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한일 간에 밖에는 그런 협력 체제를 못 만들어요. 중국과도 아주 어렵고요. 그래도 한일 간에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 하느냐, 그것을 이제부터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한일 간 협력에는 난관이 많겠죠. 그러나 양국의 젊은 세력들이 어떻게 이해를 함께하고 협력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 기성 세력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사실 한국이지요. 1980년대까지 올 때도 일본을 움직인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막 소용돌이치니까 일본도 움직인 것이에요. 일본에 그때 호응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레디니스(readiness)'가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인 월남전 반대에 처음으로 일본이 협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에 이니셔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면 일본은 따라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준비하고 조직해가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동을 해온 교훈을 생각하면, 과거에는 크리스챤아카데미가 그렇게 중심이 되었는데, 크리스챤아카데미는 그동안 뭐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승리하고는 결국 후퇴한 거예요. 다시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지금 침체된 상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대한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야당이 집권하면 제대로 할 줄 알았죠. 그러다 요즘 보니 이게 뭐 되겠느냐,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의문, 이런 생각을 다시 결집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걸 해낼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지식인들을 모아내고 해나갈 능력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거 없이 밖에서 성명서 내고 데모 하고 끝나면 뭐하나요?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아카데미가 해주시

면 우리가 그때 다 참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본도 중심이 없는데, 만일 이와나미가 다시 해준다면, 일본도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와나미에 기대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웃음)

저는 낙담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 참여할 것인가. 다소 차이는 있겠죠. 북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시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차이는 있지만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박상증

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하는 데 이야기가 자꾸 한일 관계로 집약이 되니까 동아시아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발상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아시아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한일 관계 개선을 전제로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그 꿈을 같이 나누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람만 해서 되겠나, 판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람이 마주 앉아 아무리 동아시아 평화를 이야기해봤자 다른 동아시아의 '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동아시아적인 발상'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하면 일본이 따라온다는 지명관 선생의 말씀이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과거 이와나미서점과 〈세카이〉지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긴급회의를 만들어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니까 일본 분들이 긴급회의를 해산하겠다고 해서 해산 모임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때 나카지마 목사님이 지원 자금이 20몇 만 엔이 남았다고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 돈은 일본 민주화를 위해 씁시다' 하고 남겨두고 왔어요.(웃음) 우리가 한국 민주화를 이야기하면 일본 민주화도 같이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아베 총리 상황을 보니 일본도 좀 더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평화의 바탕이 무엇인지,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공유할 것을 상상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일 문제 역시 '동아시아 평화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처 장관

개인적으로 니시하라 선생님의 2022년 이니셔티브에는 꼭 참여하겠습니다. 하나의 평화의 상징 운동으로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를 위한 논의가 여러 가지 준비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외로운 고도가 되어있단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자꾸 잊고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조차 보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민' 중심의 운동인데, 여러 인연으로 중국에 제자도 있으시고 해서 중국에 니시하라 선생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떤 규모와 깊이로 중국의 '민'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북아시아'라고 할 때 한중일과 북한을 말씀하시는데, 북한에는 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니시하라 선생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즉 시진핑의 디지털 공산주의 일당독재, 디지털 계획경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방향과는 철학적으로 다른 방향입니다. 과연 얼마나 중국에서 민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내후년이면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웃음) 호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과 결부해 평화를 강조하시는 하나의 상징성은 좋은데, 그 후대들은 '제2의 평화, 동아시아 평화'라는 컨셉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미 3차 대전은 시작되었고 작은 3차 대전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프란시스코 법황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전쟁용 원자폭탄을 맞은 유일한 나라일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가장 큰 사고를 낸, 원자력과 숙명적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실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기후 온난화, 토양 오염, 해수면 상승, 쓰레기 등등의 문제입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북한입니다. 그 점에서 전쟁의 개념이 단지 2차 대전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3차 대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또 한 차원의 전쟁 개념을 넣어서 이 문제를 전개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중앙일보와 JTBC의 홍석현입니다. 나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제 막 칠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나이입니다만(웃음). 제가 작게는 한일 우호, 크게는 아시아 평화에 대해 평소 조금은 생각을 해 본 사람으로서 오늘 니시하라 선생님 말씀을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두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전쟁 없는 아시아' 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이런 토론을 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한 유럽에서 결국 지금 전쟁을 생각할 수 없는 EU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물론 민주주의와 기독교 등의 공통분모, 문화적 공감대를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장 모네와 같은 선각자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30~40년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나의 협회까지 가진 공동체를 만들었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전 선언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는 분리주의자들이 나타나는 와중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 세금 문제 등 재정 문제까지 통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유심히 볼 것이, 아데나워와 드골 간의 대화에서 시작된 이후 1년에 30~40만 명의 청소년 교류가 수십 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눈여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동아시아 원로들 사이에 일종의 컨센서스인 부전 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아시아 평화의 큰 일보를 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경제 문제에 착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안중근 선생이 동아시아 평화론을 주창하시면서 그 옛날 한중일 3국 단일 화폐를 주장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목표 의식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보다 비교적 실행하기 쉬운, 한중일 간 청소년 교류를 지금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50만~100만 명 수준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주신다면 부전 선언을 지속시켜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 총장

저는 대화문화아카데미에 처음 왔습니다. 분위기에 감명 받았습니다. 특히 니시하라 선생님의 제안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원로 지식인들이 모여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말씀을 하신다는데, 제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랭크 스코필드와 빌헬름 뢰프케입니다.

프랭크 스코필드는 1919년 3.1운동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세계에 알린 분인데요. 제암리에서 자행된 일본의 만행을 다 찍고는 한국인에게는 참상이 덜한 것만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언젠가 해방이 되면 두 나라는 더불어 살아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관해 여쭤보고 싶고, 동시에 스코필드 박사의 말씀에 대해 한국인들은 많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헬름 뢰프케는 독일 라인강 기적에 대해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 경제학자입니다. 평생의 화두는 칸트와 괴테와 베토벤의 나라가 어쩌다 미치광이 히틀러에게 몰표를 주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재앙을 안겨 주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독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뢰프케 박사의 해법은, 계층 질서 최상층에 윤리적 엘리트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 엘리트란 한 나라의 규범과 가치를 지키는 공동체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그것을 엄격히 실천하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니시하라 선생님과 오카모토 선생님 두 분을 뵈니 일본과 동아시아의 윤리적 엘리트가 아니실까 싶은데, 두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일본 내에서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낙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전 문화관광부 장관

동아시아의 전쟁 없는 지역 선언을 반대할 사람은 없죠. 특히 우리처럼 전쟁을 경험하고 아직도 전쟁 중인 상황에서 연령이 좀 있거나 지도자급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한데요. 문제는 현실성과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서 세계가 블록화하고 있는데, 아시아가 그게 참 안 되죠. 대표적으로 EU, NATO 등이 다 잘 되는데 아시아가 매우 절실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앞서 아시아는 평화롭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범위를 좁혀 동아시아로 보면, 역시 우리가 늘 위기를 느끼는 남북문제가 있고요.

특히 글로벌 시대에 생존과 미래 번영을 위해서도 아시아가 서로 협력하여 평화 공존하는 것은 절실한데요. '아세안'은 잘 되는데 한중일이 안 되죠. 한중일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환경에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높아요. 그런데도 평화 공존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하고 조건이 좋은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사적 배경보다 현재 처한 체제가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특히 '+3(한중일)'라는 큰 나라들이 서로 대화 하면서 살아본 역사가 없다는 것, 그게 서로 협력 공존하기 어렵게 만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교류하고 소통하여 이해하고, 그러면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명관 선생님은 한국이 시작하면 일본이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일본이 시작했으니,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역사 인식 차이 문제는 공감하지만 그것부터 해결하려면 어려우니,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85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기동력 문제도 있고(웃음) 좀 높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평화 문제가 있을 때 그동안 그런 문제는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관습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전쟁 등 갈등에서 가장 희생이 큰 게 여성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도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에 꼭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안재웅
한국YMCA
전국연맹유지재단 이사장

저는 실제적인 경험을 한 두 마디만 나누고 싶습니다. 9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YMCA 총회를 일본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국 YMCA에서 작게 제작한 소녀상 100개를 가져가 한쪽에 전시했습니다. 모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 YMCA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라는 증거로 전시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호응했고 오로지 일본 YMCA 사람들만 비교적 불편해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소녀상 전시를 일본 정부가 막았습니다. 시민 사회가 '촛불 항쟁'처럼 엄청난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무감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민이 중심이다'라는 것이 말로는 가능한데, 일본의 '민'이 과연 일어설 수 있는가, 억압에 대해 '아니오'라고 나서고 있는가, 라고 하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양국의 시민 사회 운동을 같이 보아선 안 된다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의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얼마 전 NCC(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홍콩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의견을 전 세계 NCC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NCC가 홍콩에 연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연대 성명이 왔다'고 홍콩 언론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깜짝 놀라, 중국 NCC를 통해서 한국에 항의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 NCC가 곤란해진 것이죠. 그러나 한국 NCC는 이것이 기독교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NCC는 일본, 대만, 홍콩 NCC와 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NCC는 중국 때문에 한국에 압력을 넣어 가급적 이것을 축소화하고 후퇴시키자는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를 포함해 시민 사회 운동에 있어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건 하되 한 번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떤 가족사 때문에 얼마 전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이 보통 풍신수길(豊臣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이 국제정세에 밝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국(國)'이란 것은 일본에서는 지방을 뜻하는 한 단위이지, '나라', 즉 '다른 나라'를 뜻하지 않는다고요. 만일 일본과 풍습·언어·문화가 다른 외국이란 것을 알았으면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이란 게 일본과 풍습도 사람도 다르고 한 것인데, 조선 같은 곳은 아무리 임금을 잡아도 민이 들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쟁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하라 총장님께서 '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2022년 선언에는 각 나라의 정상들이 전쟁하지 말자는 것만 합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자고 하거든 민은 내 말을 듣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늘 니시하라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른들이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연세에 그런 것을 생각하셨다는 데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본 아베 정권이, 정확한 시기는 박근혜 정권 때라고 생각되는데, 예전에는 한국을 지칭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중요한 나라' 라고 했었는데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부천시와 가와사키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도 하는데, 그 문서에 '부천시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 외교 문서에는 다 그렇게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금년에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패싱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가치인가. 우리가 일본과 무슨 가치가 다르기에 그것을 빼버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우리도 잘 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로 치면 아시아에서 제일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요. 인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사회권도 그렇고요. 그 다음 외국인에 대한 정책, 우리가 훨씬 잘 하고 있어요. 외국인 참정권을 우리는 지방 선거에서 인정하지만 일본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해 나갈 때 무슨 가치로 뭉칠 것인가, 무슨 가치 기준으로 모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저는 일본 시민 사회와 지자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일 관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본에서 한 그룹이 찾아와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는 11월 2일 일본 측에서 주최하는 헌법 9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시민 단체가 찾아가 참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사회 영역에서는, 혐한도 있고 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6월 민주포럼' 단체도 일본 시민 사회와 대화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민의 교류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령 트위터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문제에 대해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걱정하는 사람들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동아시아 평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김용복
아시아태평양생명학 연구원 원장

간단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 지금 전 세계는 대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를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미래 비전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상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상력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융합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본, 한국, 중국 각각의 국가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 나라는 한문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선언이 나오는 게 좋겠는데, 그 선언이 다음 단계를 위해 헌장으로, 즉 '동아시아 평화 헌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유엔 헌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엔은 행동 주체가 국가입니다. 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를 없앨 수 없잖아요. 국가가 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장이 생기면 그걸 토대로 상황에 대한 가차 없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장으로 과거를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5개 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지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이 역사를 다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가 문제인데요.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살고 있어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석 달만 훈련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장에 '평화 언어'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삼열
사회

그럼 니시하라 하루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총평 겸 말씀을 해 주시고 이홍구 총리께서 폐회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대대학 총장

솔직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이 기획 자체는 좋지만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획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 평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편향된 보도가 오히려 방해 작용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현재 시점에서는 언론 매체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분들의 고견을 듣고, 아마도 이 기획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11월 말 정도까지는 대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계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컨대 도쿄의 외국인 기자 분들도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과는 이 기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 측의 이후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아마 내년 초반 정도에는 몇 분을 더 추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한국 분들께서는 이런 기획이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 자체는 괜찮은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각각의 입장에서 저로서는 전향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긴 시간에 걸쳐 논의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카모토 아쓰시
이와나미서점 사장

오늘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도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임이 이전에는 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작년 6월 이곳에 왔을 때 백낙청 선생님이 계신 창비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가했는데요. 그때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조직을 해 보려 했는데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안에서의 고립화, 즉 개인이 다 고립되어 버린 것 때문에 이런 논의와 대화를 진행하려 해도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이부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 원로 106명의 공동 선언을 저희도 받아 보았는데요. 저희 안에서도 토론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가능한 부분은 응답을 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 선생님, 다나카 히로시 선생님, 우즈미 아이코 선생님, 우즈라 마사토시 변호사님...그러니까 '한국은 적인가' 성명을 발표했던 중심인물들은 한국의 성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니시하라 선생님의 오늘 이 논의와는 다른 그룹이 제대로 토론해 그 응답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니시하라 선생님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계기로 '정론'만 갖고는 연결 될 수 없던 분들에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후쿠다 전 총리도 그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체인 회장님이라든가, 문부과학성 장관 출신, 등산가인 스포츠맨 등도 참여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될 수 없었던, 닿지 못했던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라면 찬성을 표명하거든요. 작가 분들도 물론 찬성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도 향후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형태로,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정론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되는 식민지 문제, 역사 인식, 침략 문제와 같은 논의도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일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생겨나거나 새로운 응답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와다 하루키 교수님 그룹 쪽도 물론 참여하지만 니시하라 선생님과도 함께 이 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삼열
사회

오늘 무거운 주제를 갖고, 3시간은 부족한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니시하라 총장님의 제안을 듣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시하라 총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우리는 결국 동아시아 평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좀 더 철저하게 논의하고 연구하는 운동이나 모임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저희 대화문화아카데미로서는 동아시아평화회의가 정계, 시민사회계 원로들과 함께 조직이 되어 있고 지난번 함께 중요한 성명서를 내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논의하는 운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시간 절약하셔서 절제된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오늘 모임은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먼 길 오셔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엄청 큰 숙제를 또 놓고 가시기 때문에(웃음) 아마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런 모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모임도 우리 강원용 목사가 계셨으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아카데미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은 오래 기억될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명단 * 가나다순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용복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원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처 장관
박상증	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백낙청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신낙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전 문화관광부 장관
안재웅	한국YMCA전국연맹유지재단 이사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전기호	한일반핵평화연대 사무국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 총장
지명관	전 한림대 석좌교수
채수일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일 대사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다 대학 총장
오카모토 아쓰시	이와나미서점 사장

韓国長老会議冒頭説明

西原春夫
元 早稲田大学総長

本日は皆さま、韓国のきわめて重要な地位にあられる方々がそろってこのようにたくさんお集まりくださり、非常に感激しております。光栄に且つうれしく存じております。

この会合は、私の敬愛する岩波書店の岡本厚社長が、本日もご出席の池明観先生に対し、私並びに私の企画を紹介するメールを 9月 10日ごろに発送して下さったところから始まりました。これを受けた池先生は早速李三悦先生、李富榮先生などに連絡され、その成果が本日の会合として実ったと推察しております。これらの方々のご見識とご努力には、ただただ敬服、感謝のほかありません。

私は 1982年から 90年まで 8年間、東京にある早稲田大学の総長を仰せつかりました。皆様も多分ご存知のように、早稲田大学は韓国や中国などアジアの国々と非常に親しい関係を持つ大学ですので、其の総長を仰せつかった私といたしましても、その伝統を引き継いで、アジア諸国との関係を深める努力をしてまいりました。

その私も、昨年 90歳を迎えたころから、あと残されたわずかな期間ではあるけれども、まだし残した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というのは、この一二年の間に、多分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いう不可避の流れに対する抵抗感の表れでありましょうか、多くの国でナショナリズムの機運が強まり、それが戦争への危機感を増大させているからです。

私は日本が太平洋戦争に敗れた 1945年には 17歳でした。人生の中で最も多情多感 な時期に敗戦、価値観の大転換を経験したわけです。そこから私は、いくつもの、その後の人生を左右するような想いを抱きました。

その中に、「戦争は理由の如何を問わず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そういう想いを今も引きずっている私ですから、最近の世界の成り行きが気になってならなくなったのです。

しかも、もしかすると、同じ想いをしている同世代の方々が日本にも、あるいは外国にもおられるのではなかろうか。その中には、平和に向けた何かの行動をしたいのだが、その形が見つからないという方が多いのではなかろうか、そう考え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そのようなある日の早朝、突然ある着想が浮かんできました。それは天のお告げとでも言いたいぐらいのすごい発想でしたが、まるで夢のような話ですので、周りにいる有識者に片端から相談したところ、ここにおられる岡本岩波書店社長も含め、20人ほどの方々が例外なく、賛成だ、ぜひやるべきだ、ぜひやってほしいと言われるのです。

最後に、政治にもアジアにも大変詳しい、長年懇意にしている福田康夫元総理に相談したところ、やる

べきだ、私も手伝うよ、とのご判断を頂き、私も最終的に決断するに至りました。

その内容や意義については後に詳しく説明する機会があると思いますが、端的に結論だけを申しますと、「ある特定の時点を期して、すべての東アジア構成国の首脳が『東アジアを戦争の無い地域とする』という共同宣言を発することを究極的な目標とする」

「その目標を達成する方法は、東アジアのすべてではないにしても多くの国の長老、つまり、戦争時代を直接体験しており、戦争の悲惨さ、愚昧さを身に染みて感じているおおよそ 85歳以上の長老が、国境を越えて心を一つにし、それぞれ国の国民、ひいては政府に働きかける」というのです。

ここで、企画の基礎となっている一種の思想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頂きます。

二つあります。第一は、私がほぼ半世紀を過ごした早稲田大学の基本的な校風の中に、常に「民」の立場に立つという側面があります。例えば日本の国立大学の代表とも言える東京大学は常に「国」の立場に立つのとは対照的な性格を持っております。

国の立場と民の立場とは必ずしも常に相対立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時として両者が相反す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場合、早稲田大学は国の立場に反してでも民の立場に立つというのが基本的な校風なのです。

このことは、戦前、早稲田大学から例えば高麗大学や東亜日報の創立者である金性洙先生等多くの民族独立運動の理論的指導者を生んだところにも現れています。

皆さん、戦前の日韓併合や、現在問題となっている慰安婦問題、徴用エ問題などはみな「国」の施策のあらわれでしょう。「国」の立場に立つと、いろいろな「名目」がありますから、対立は簡単に解決できません。

これに対し、日本国民の中にももちろんいろいろな考え方がありますが、大部分の日本人は、慰安婦とされ徴 用エとされた韓国の人々のことについて胸を痛めているのです 。

これは明らかに「国」の立場とは違う「民」の立場なのです。戦争についても、戦争を起こすのは「国」です。「民」は戦争などしたくないのです。私は長年早稲田大学の中で生きてきましたから、常に「民」の立場に立つという心構えが身についています。そういう私から、「少なくとも東アジアを戦争の無い地域にしよう」という熱望が生まれ、民の立場に立つ各国の長老の方々と手を結ぼうという発想が生まれた理由がご理解頂けたと思います。

第二は、長年大学経営に苦心している間、とくに 1960年後半に日本で吹き荒れた「大学紛争」の時代に、役職者として苦労している間に身に着けた処世術があります 。

それは、利害の対立が嵩じて感情的な対立にまで達したときには、「対立を解決、解消する」ことはほとんど不可能なので、その努力はしない。しかし事態を放置することはよくないので、「解決、解消」ではなく、「克服、超克」の道に努力しようというのです。

「克服、超克」の手法は、対立している次元より一つ高い次元に立つという事です。そしてその高い次元は、対立しているものの「共通分母」を見出すと見えてくるというのです。皆さんの中でご存知の方も多いと思いますが、日本では早稲田と慶応は永遠のライバルです。本当は仲が良いのですが、「相手には絶対負けない」と意地を張っているのです。そのライバル関係によって、早慶両校は私学の雄として発展したのだと思います。

もし早稲田の総長が「私学の雄は慶応ではなく私だ」と言い張り、慶應の塾長が「私学の雄は早稲田でなく慶応だ」と豪語したとすると、対立は解消できません。周りは困るばかりです。

そのときどうするか、早稲田も慶応も私学の雄をもって任じているのですから、その「私学」を共通分母にしてしまえばよいのです。私学に十分な財政支援をしない「財務省」を仮想敵にして、早稲田の総長と慶応の塾長とが私学を代表して財務省と交渉する、それが成果を挙げる間に総長と塾長とが仲良くなる、そういう方法があるというのが私の長年の処世術です。

韓国と日本。国の立場に立つと、現在の問題解決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そういう時だからこそ、私の長年の手法が日韓関係についてもあてはまるのではないか、そう思いついたのです。

韓国と日本を超える高い次元、共通分母、それは両国民が等しく住む「東アジア」です。

「平和」です。この二つを結合した「東アジアの平和」。これを望まない両国国民はいません。共通の理想になるのです。

しかし、単に東アジアに平和を実現しましうょというのでは、運動としての力が足りません。そこで、「東アジア全構成国の首脳の共同宣言」という、目に見える目標を設定したのです。そしてさらに国民やマスコミや政府の意識を掻き立てるために、その時期を今世紀唯一の 2022 年＊＊＊＊＊と＊い＊う＊時＊点としたのです。

冒頭説明の最後に、以下のことを明らかにしておきたいと存じます 。

私共は決して、この企画を日本側で固め、それについて韓国側のご賛同を頂きたいという方針はとりません。確かに私は日本人ですが、私はいわばアジア人として、運動に必要な調整役を演ずるだけなのです。現に日本ではまだ企画実現の途中で、長老グルーもプまだ形成途上にあります。私は、日本の長老に企画の提案をしながら、同時に韓国の長老にも同じような提案をしているのです。企画の内容も、皆様の御意見を聴いて修正るすことが可能です。私は本企画の基本的なモットーとして「皆の夢を皆で叶えましよう」という言葉を使いたいと考えています。確かに国という組織があり、言葉の違いもありますので、結果として「国別長老グループ」は出来ざるを得ないと考えますが、皆が「東アジアの長老」という共通意識を持って頂ければ幸い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

このあと、岡本岩波書店社長からお言葉を頂いたのち、質疑応答、協議の中で疑問点についてさらに説明したいと考え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東アジアの平和に向けた提案
戦争時代を直接体験した世代からの提案（案）

西原春夫
元 早稲田大学総長

趣旨

1945年の第二次世界大戦終了後、以前頻発した国同士の全面戦争は幸いほとんど起こっていない。固い決意さえあれば戦争は起こらないことの証左と言えるであろう。

しかし他方、それぞれ深刻な背景を持つ局地的な戦乱は残念ながら後を絶たない。そこで罪のない子供を含むたくさんの尊い命が奪われていることに心を痛める昨今である。

私共の住む東アジアは現在なおさまざまな不安定要素を抱えているものの、比較的平和な状態が続いている。各国政府が意識して一層の努力を続けるならば、東アジアから戦争を無くすことも夢ではない。

戦争の無い地域を少しずつ広げてゆくことができれば、それだけ世界平和が近づく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そういう意味において、少なくとも東アジアを戦争の無い地域にする努力は、世界の平和、人間の幸福に貢献するところが大きいと思う。

今世界は大きな岐路に立っている。この時に当たり、戦争時代を直接体験し、戦争の悲惨さ、愚昧さを痛感している東アジア各国の長老が、国を超え、心を一つにして各国国民に語りかけ、政府を動かして平和への一層の努力を傾けることは、時代の要請するところ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そこで私共は下記のような提案を各国政府に対して行う運動を展開することとした。願わくば平和を希求する各国国民の熱烈なご支持、ご支援を期待したい。

提案の内容

戦争時代を直接体験した世代に属する私共は、以下のことを東アジア各国政府に要望する。

2022年2月22日22時22分22秒という、まさに千年に一度しかない時点を期して東アジア全構成国の首脳が下記のような共同宣言をおこなうこと。

(1) 少なくともまず東アジアを戦争の無い地域とする。

(2) 平和を阻害する恐れのある紛争が生じた場合には、当事国同士がまず対話をもって解決を図り、それでも解消しない場合には、周辺諸国が間に立つなど、アジア人特有の叡智を傾けて解決を図る。

(3) 国際連合憲章および東南アジア友好協力条約の精神を再認識し、これを推進する。

(4) 国民、若者の交流や文化交流など、相互理解のための施策を各国政府が積極的に推進する。

西原構想と私

岡本厚
岩波書店代表取締役社長

私は、今回、西原元早稲田大学総長の「東アジア平和イニシアティブ」（仮称）に共感し、その補佐的な立場として、ここに参りました。

私自身は、1995年のクリスチャン・アカデミーと岩波書店が共催した、日韓シンポジウムに、事務局的な立場で参加し、大江健三郎氏、坂本義和氏（故人）、そして安江良介当時岩波書店社長（故人）とともにソウルを訪れ、また東京で、多くの韓国の先生方をお迎えしました。私は、そのときの先生方の発言に、大きな影響を受けました。韓国側で中心になられた池明観先生、李三悦・対話アカデミー理事長と、本日、お目にかかれるのは、まことに幸甚なことであります。

私はその後、岩波書店の「世界」編集長を16年間務め、その間に、金大中大統領に単独インタビューすることが出来ました。2013年から、岩波書店の社長を務めております。「世界」におりましたときもその後も、日韓関係について関心を持ち続け、今年に入りましてからも、2月には、＜3・1宣言100年＞の声明「2019年日本市民知識人の声明」に名を連ね、また、7月には、日本の輸出規制に対して、80名の有識者とともに「韓国は「敵」なのか」声明の呼びかけ人となりました。賛同者は、2ヶ月で9500名を超えました。

私は、現在の日韓関係、とりわけ安倍政権の対韓国政策に危機感を持っており、今後とも、両国関係の改善に向け、力を尽くして参るつもりです。

いま西原春夫先生からお話のあった、「東アジア平和イニシアティブ構想」（仮）は、――皆様もすでにお気づきの通りーーこうした、具体的な政策提言といったものとは、位相を異にしているものです。私は、数年前から、（日中、日韓間で領土問題が起きた頃を契機として）西原先生と時折、対話し、交流をして参りました。そのテーマは、主要には中国との関係をめぐってのものでした。最近は、状況の変化もあり、日中関係はやや改善の兆しがありますが、基本的には、なお厳しい対立関係にあります。それをどうしていくべきか、少人数で語り合っていたのです。

西原先生は、大学総長を退任された後も、中国にしばしば出かけ、ご専門の刑法について、中国の学者と交流し、また数多くの学生たちに教授されてきました。政府間では対立が激しくとも、先生は交流と教授を続けることを躊躇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先生に対する中国の司法関係者、研究者の信頼は絶大なものがあります。

先生のお考えは、一方ではきわめて気宇壮大でありつつ、一方ではきわめて現実的であります。そして、平和を求めていくことに関しては、強い信念と断固とした使命感をもたれておられます。

今回、生涯最後の仕事、また戦争を体験した世代が最後にやるべき仕事として、先生が構想されたのが、「東アジア平和イニシアティブ」（仮）であります。

ここには、たとえば現在の日韓間の対立への具体的な言及はなく、あるいは南北朝鮮間の問題、香港の問題、韓国と中国との対立の問題などへの具体的な提案もありません。それら全体を大きく包み込むような、東アジア地域が一致できるような、首脳の不戦宣言を行おうという構想です。ここに、各国の保守的な方からリベラルな方までが、また、様々な歴史的な経験をされた方々が、まずは、平和という価値を共有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

東アジアのどの国でも、戦争を望んでいる国はないと思います。しかし、様々な問題が起こると、ナショナリズムが煽られ、扇情的短絡的な政治家の発言が繰り返されると、社会は混乱し、制御不能になってしまう危うさがあります。生々しい政治からは、距離のある各国の長老たちが、それらを諫め、国境を超えて、共通の価値を宣言する意味はここにあります。

ユネスコ憲章は、次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戦争は人の心の中で生まれるものであるから、人の心の中に平和のとりでを築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ことを、東アジアで、改めて確認し、お互いの約束としたいと考えるのです。

もちろん、たとえば、日韓間の対立に対する具体的な提案や声明、あるいは具体的な行動などと、この構想は矛盾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参加者

金道鉉　元 文化体育観光部 次官
金聖在　金大中アカデミー 院長, 元 文化体育観光部 長官
金泳鎬　檀国大学校 碩座教授, 元 産業資源部 長官
金容福　アジア太平洋生命学研究院 院長
金鎭炫　世界平和フォーラム 理事長, 元 長官
朴相增　元 アジア基督教協議会 理事長
白樂晴　文学評論家, ソウル大学校 名誉教授
申樂均　民主平和統一諮問会議 副議長, 元 文化観光部 長官
安載雄　韓国YMCA全国連盟 維持財團 理事長
李富榮　東アジア平和会議 運営委員長
李三悅　対話文化アカデミー 理事長
李時載　カトリック大学校 名誉教授, 元 環境運動連合 共同代表
李夏慶　中央日報 主筆
李賢淑　女性平和外交フォーラム 代表
李洪九　元 国務総理
全起灝　韓日反核平和連帶　事務局長
鄭雲燦　元 国務総理, 元 ソウル大学校 総長
池明観　元 翰林大学校 碩座教授
蔡洙一　クリスチャン・アカデミー 理事長
崔相龍　高麗大学校 名誉教授, 元 駐日大使
洪錫炫　中央ホールディングス 會長

西原春夫　元 早稲田大学総長
岡本厚　岩波書店代表取締役社長

ⓒ대화록 33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발행일 2019.12.6
발행처 대화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평창6길 35(03003)
전화 02.395.0781
팩스 02.395.1093
이메일 tagung@daemuna.or.kr
홈페이지 www.daemuna.or.kr
멋지음 PaTI